

최민 상임활동가

선전위원, 상임활동가 최민입니다. 2024년까지 선전위원회 활동을 하다, 2월부터 선전위원회 활동에 기쁘게 다시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하고, 인터뷰하고, 원고 쓰고, 교정교열과 편집 후 인쇄와 발송까지 매달 돌아가는 일터 제작은 바쁘고 힘들지만, 손에 남는 뿌듯함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활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 매달 반듯한 잡지가 저와 동료들의 손에 남으니깐요. 조금 더 흥미롭고 반짝이는 일터를 만들며, 동시에 당장 손에 성과가 남지 않는 '활동'도 정성스레 해 나가야겠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2월 연구소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느라 바쁩니다. 작년에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라 노동안전 연구사업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못한 몫까지 벌써 여러 개의 연구 사업이 기획, 진행 중입니다. 교육공무직 안전보건실태조사,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확보 및 공공성 강화 전략 연구가 이미 한창 진행 중이고요, 서비스노동자 야간노동 실태 조사, 학교 안전보건체계 개선 연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상 약정병가 제도 실태 조사 및 법제화 필요성 검토 연구, 이동방문 노동자의 젠더 기반 위험성평가 연구가 기획 논의 중입니다. 다 궁금하고 기대되지요? 일터에서도 종종 기사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미뤘던 중장기 과제들 - 노동자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 제기, 아프면 쉴 권리 쟁취를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이미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로 씨름 중인 회원들을 만나며 연구소가 이를 어떻게 묶어낼지 의견을 나누고 있고, 상병수당과 병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할지도 고민 중입니다. 사업으로 본격화될 때, 회원/일터 독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따뜻한 봄에, 여러 활동 속에서 만나요!

